

보도일시 (인터넷) 2023. 11. 30.(목) 06:00, (지면) 2023. 11. 30.(목) 석간 배포 2023. 11. 29.(수) 오후

2023년 최우수 항만운영기관에 부산항만공사, 최우수 항만보안기관에 울산항만공사 각각 선정

- 11. 28.(화) 2023년 항만운영 및 보안 혁신대회 실시

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는 11월 28일(화) 세종에서 '2023년 항만운영 및 보안 혁신대회'를 개최하고, 2023년 최우수 항만 운영기관에 부산항만공사를, 최우수 항만 보안기관에 울산항만공사를 각각 선정하였다고 밝혔다.

해양수산부는 혁신적인 항만운영 아이디어와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키고자 2004년부터 매년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4개 항만공사 등 항만운영기관이 참여하는 항만운영 혁신대회를 개최해 왔다.

올해 대회는 우수기관 유형에 항만운영 분야 외에 항만보안 분야도 새롭게 포함하고, 실무자의 투표 반영 등 우수기관 선정 절차도 개선하였다.

항만운영 분야의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의 하역장비 국산화를 도입하고, 액화천연가스(LNG) 연료 사용 등 항만 전반의 친환경 전환을 추진하였다. 또한, 항만보안 분야의 최우수 기관인 울산항만공사는 외국인선원의 밀입국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선박 감시를 강화하고 사람의 움직임 등을 감지하는 복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보안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.

해양수산부는 두 기관에 해양수산부장관상과 상금을 수여*하고, 두 기관의 혁신사례가 여러 항만에 적용되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전국 항만운영기관 등에 혁신사례를 전파할 계획이다.

* (운영) 최우수 상금 120만 원, 우수 70, 장려 50 / (보안) 최우수 100, 우수 50

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이번 대회에서 발굴된 항만운영·보안 혁신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우리나라 항만이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	책임자	과 장	최종욱 (044-200-5770)
		담당자	사무관	박찬수 (044-200-5771)
			사무관	명수한 (044-200-5780)

